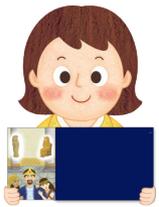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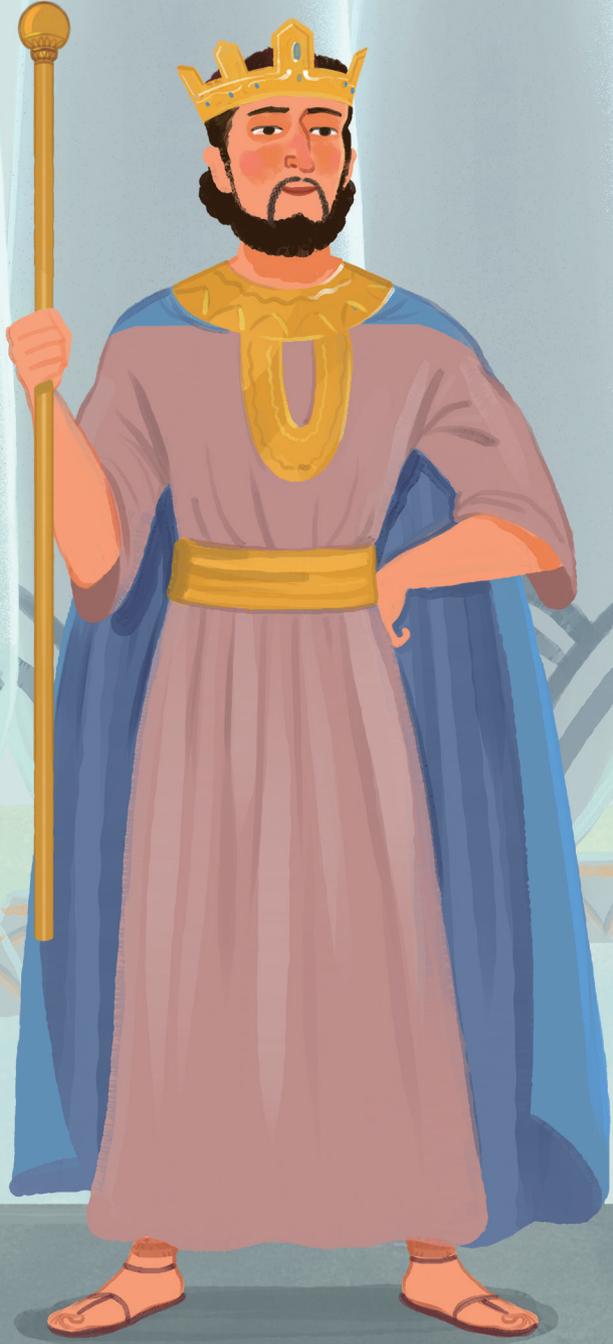
(가림막으로 1-1의 ‘분열된 나라’를 가리고 ‘솔로몬과 두 여인’을 보여준 후, 솔로몬을 가리키며)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답을 듣고) 바로 솔로몬이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던 왕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만 따르던 솔로몬의 마음이 변해갔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따르지 않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도 섬기는 죄를 짓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변한 솔로몬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고 엄하게 말씀 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가림막으로 1-1의 ‘솔로몬과 두 여인’을 가리고 ‘분열된 나라’를 보여주며) 하나님은 마음이 변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솔로몬에게 큰 벌을 내리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벌은 바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는 것이었어요(왕상 11:30-31). 이 일은 솔로몬에게 아주 큰 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질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나라가 아주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이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왕상 11:12).

가림막 활용 방법







(‘백성들’을 접은 채로 1-2를 보여주며) 시간이 흘러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백성들’을 가리키며) 이스라엘 백성은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주기 원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찾아가 부탁했어요.

“왕이시여! 솔로몬 왕이 나라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성전을 짓느라 힘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편안히 살게 해주십시오.” (왕상 12:3-4)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답을 듣고)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부탁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키려고 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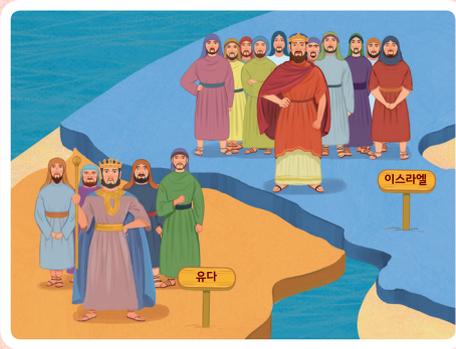
(‘백성들’을 펼치며)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들을 잘 돌보지 않고 더 힘든 일을 시키는 왕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르호보암 대신 솔로몬의 신하였던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스라엘



유다



(1-3을 보여주며) 이렇게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었어요.

솔로몬의 신하는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북쪽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스라엘' 뜻을 가리키며) 북쪽 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백성의 수도 많고 땅도 넓은 나라였어요.

르호보암은 남쪽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유다' 뜻을 가리키며) 남쪽 나라의 이름은 '유다'였어요. 남유다는 백성의 수도 적고 땅도 아주 좁은 나라였어요.

여러분,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왜 두 나라로 나뉘었나요? (대답을 듣고) 바로 솔로몬의 죄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지었어요. 이러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마음이 변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다윗과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어 남유다를 다스리게 하셨어요(삼하 7:16).